

표 4. 연근별 인삼재배면적, 종자채취 추정면적과 생산량

구 분	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면적(ha)	15,824	3,647	3,256	3,310	2,756	2,855
종자채취 추정면적(ha)	2,304	-	814	1,490	-	-
종자 생산량(톤)	305	-	81	224	-	-

\* 자료: 국내 인삼종자의 생산·유통실태의 조사 2015, 윤 용민

둘째는 2013년 인삼 총 재배 면적 15,824ha중 15%의 면적에서 ha당 150kg수량을 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계산하면  $15,824\text{ha} \times 0.15 \times 150\text{kg/ha} = 356\text{톤}$ 의 종자 채취 추정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은 충남지역에서 17명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여 계산된 것이어서 전체적인 종자생산량으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종자의 거래가 개인적이고 비개방적인 경우가 많아 추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삼종자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과 심증은 있었으나 실제로 2013년 고려인삼 종자 9억원 어치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됨으로 불법 종자 밀수출 거래가 사실로 입증되었다. 중국 인삼종자의 상당량이 한국에서 불법 유출된 종자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 현지 시장(集安 清河鎮 인삼시장)에서도 고려인삼 종자가 거래되고 있었다. 국내 종자가격(2013)은 6kg(한말)당 20-40만원으로 인삼종자의 가격은 중국 상인들의 출현에 따라 큰 기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3.1-6은 인삼종자 채집에서 밀반출까지의 경로를 추정한 것이다. 국외 밀반출은 중국 상인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인삼종자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20-30kg의 소포장으로 나누어 보따리 상인들이 군산 또는 인천에서 중국으로 운반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는 형태로서 중국의 종묘상이나 상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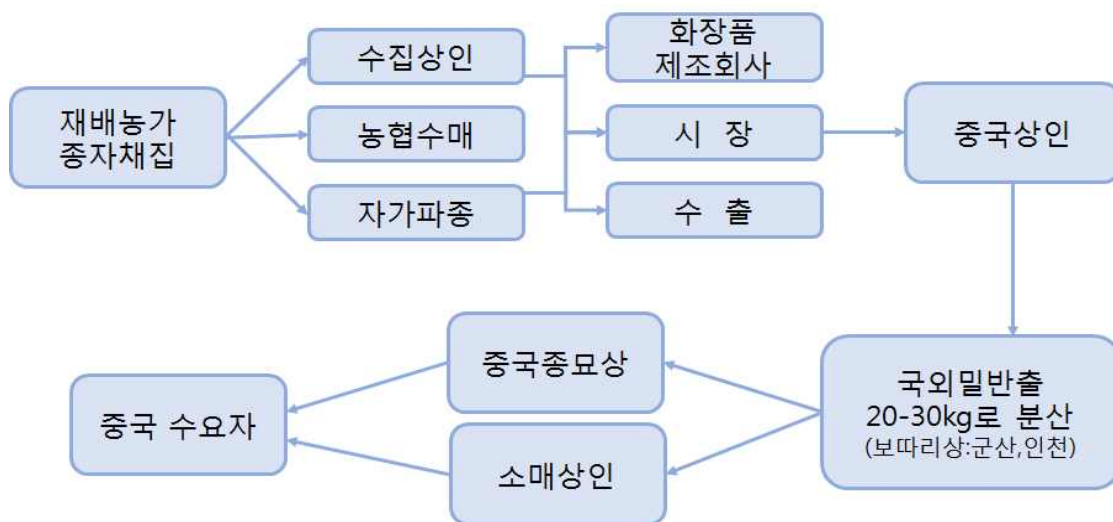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삼 종자의 중국유출 경로